

침실보다 놀이와 문화·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늘어

글 서윤영 건축 칼럼니스트



요즘 아파트는 대개 거실 하나에 방 3개로 이뤄져 있는데, 이는 1960년의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에서부터 2000년대의 '둘이 만났으니 둘은 낳고 살자' 에 이르기까지 4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2자녀 낳기 운동' 과 연관되어 있다. 즉 아파트는 부부와 2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이 살기에 적당한 구조이며, 각자에게 개별 침실을 주기 위해서는 3개의 방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서재라는 새로운 개념의 방들이 아파트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아파트는 대형화되는 반면 가족의 구성원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4개의 침실이 있는 40평형대 아파트에는 노부모 동거 비율이 낮아지고 한 자녀만 둔 가정이 증가하자 여유 방이 생기고 그 방을 서재나 홈 시어터로 꾸미는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런 방들의 특징은 침실이 아닌 취미공간이라는 것인데, 아파트에서 비침실(非寢室, non-bedroom)계의 방이 등장했다는 것은 상당히 눈여겨볼 일이다.

경제학에는 앵겔지수 이론이 있다. 이는 전체 지출액 가운데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저소득층이며 반대로 식비의 지출비율이 낮을수록 고소득층이라는 것, 1963년 우리나라의 앵겔지수는 61%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26% 정도로 현저히 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앵겔지수를 건축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밥은 먹는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식비가 전체 지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침실은 주택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이다. 요즘은 드문 일이 되었지만 한 세대 전만 해도 신혼부부들은 주로 단칸 셋방에서 살림을 시작했다. 그 때의 단칸 셋방이란 부엌 하나에 침실 하나가 전부였다. 따라서 주택에서 침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저소득층이며 반대로 침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고소득층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같은 아파트 단지의 똑같은 33평형 아파트에서 자가 거주를 한다고 해도, 신혼부부가 신접살림을 차린 경우와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을 둔 중년의 부부가 노부모까지 모시고 사는 경우는 분명 '침실지수' 가 다르다. 신혼부부는 방 하나만 침실로 쓰고 나머지는 서재와 홈 시어터로 꾸미겠지만, 여섯 식구가 사는 집이라면 방 세 개를 모두 침실로 쓰기도 모자라 거실도 노부모용 침실로 사용할 것이다. 이 때 신혼부부의 침실지수는 30%정도겠지만 여섯 식구의 침실지수는 60%를 초과할 것이며, 당연히 침실지수가 낮은 쪽이 보다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

1970~80년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양적 공급에 주력해왔다. 그것은 주택 외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이, 주택 내적으로는 모든 가족이 개별 침실을 갖는 1인 1침실이 목표였다. 그런데 1990년대 분당과 일산 등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주택의 양적 공급이 어느 정

도 해소되자 이제 주택의 질을 추구하는 단계로 들어섰고, 그와 동시에 주택 내에서 침실의 비율도 낮아지기 시작했다. 침실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방들, 이를테면 서재나 홈 시어터 혹은 드레스 룸이 생겼으며, 거실의 성격 또한 분화되기 시작했다.

거실은 아파트 도입 초기인 1960년대부터 있었던 유일한 비침실계의 방으로 가족 모임과 손님 접대가 함께 일어나는 곳이었는데, 이곳이 최근 가족실과 응접실로 분화하고 있다. 혹은 아파트 내에 별도의 '식당' 을 두는 집도 있다. 현재 아파트에서는 주방과 거실을 잇는 어정쩡한 통로 부분에 식탁을 놓고 밥을 먹으며, 집들이 등으로 손님이 많이 올 때에는 거실에 교자상을 편다. 즉 거실이 식당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손님 초대가 빈번하다면 방 하나를 아예 식당으로 꾸며 그곳에서 식사를 한 후 거실로 자리를 옮겨 다과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요즘은 집들이나 돌잔치, 어른의 생신 등을 집에서 치리기가 어려워 외부의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집에서 침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대신 응접실이나 별도의 식당이 있다면 집 안에서도 충분히 치를 수 있다.

물론 집에 식당과 응접실, 홈 시어터, 서재 등을 모두 갖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집은 양적인 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집이란 으레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곳' 이었을 뿐, 손님을 초대하거나 집에서 영화를 즐기는 일을 매우 생소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나 과거 60%를 넘던 식비 지출비율이 이제 26%대로 떨어지고 여행이나 스포츠, 문화, 교육 등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듯이, 주택 또한 점차 침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취미 공간이나 응접실, 식당 등의 비침실계 방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생신이나 돌잔치 같은 '집안 행사' 마저 집 밖에서 치르는 것에서 벗어나, 집안 행사는 집안에서 치르는 집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 ☺

이 글을 쓴 서윤영 씨는 무영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월드컵 축구경기장, 영종도 신공항, 고속철도 역사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저서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집주집뮈》, 《사람을 닮은 집, 세상을 닮은 집》 등이 있다.